

Eugene's FICC Update



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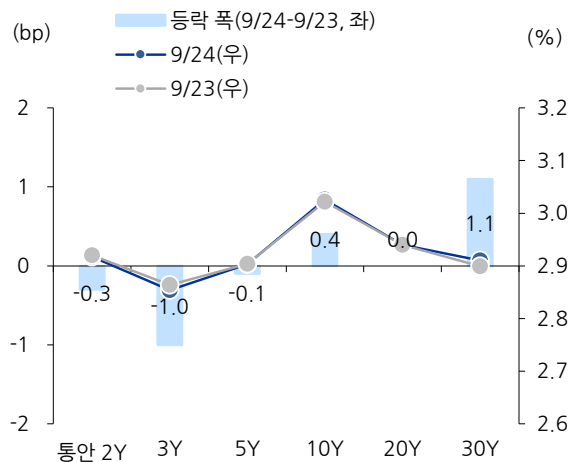
Fixed Income 김지나_02)368-6149_jnkim0526@eugenefn.com Economist 이정훈_02)368-6176_jhoonlee@eugenefn.com RA 유재혁_02)368-6177_dbwogur170@eugenefn.com

Fixed Incom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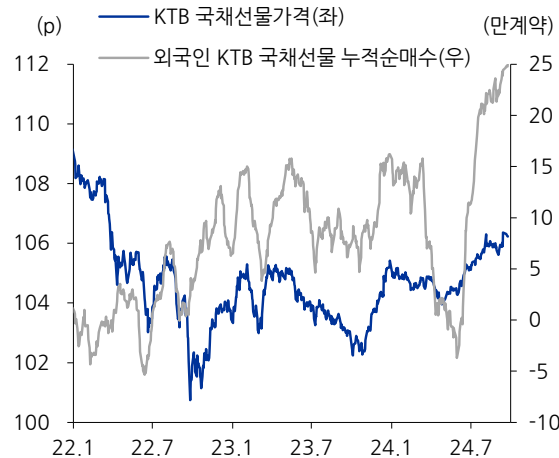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bp, 톱)

		9/24일	1D	1W	YTD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2.854%	-1.0	-1.2	-30.0
	한국 국고채 10년물	3.026%	0.4	5.6	-15.7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,bp)	17.2	15.8	10.4	2.9
	3년 국채 선물(KTB)	106.23	0.0	33.0	81
	10년 국채선물(LKTB)	117.00	-9.0	-15.0	150
해외 채권	미국채 2년물	3.539%	-4.9	-6.8	-71.1
	미국채 10년물	3.730%	-2.1	8.3	-15.0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,bp)	19.1	16.3	4.0	-37.1
	독일국채 10년물	2.143%	-0.9	-0.0	13.9
	호주국채 10년물	3.886%	-8.0	5.6	-6.8
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국내 채권시장 혼조세 마감
- 전일 연준인사들의 엇갈린 발언 속 미 PMI 둔화 여파로 강세 출발. 개장 전 발표된 PPI 하락 전환한 점도 우호적으로 작용
- 윤대통령 발언 이후 장기구간 강세 강화되었으나 장 후반 아시아장 미국채 금리 반등 영향 등에 약세 전환. RBA 금리 동결은 국내 영향 미미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강세 마감.
- 중국 부양책 예고 속 7월 주택가격지수 사상최대치 경신, 장 초반 미국채 10년물 중심 약세 야기
- 다만 CB 소비자신뢰지수, 3개월만에 최저치 및 21년 8월 이후 최대 낙폭 보이며 수익률 전반을 압박. 2년물은 입찰 호조 영향에 강세가 두드러짐
- 금일 미국 8월 신규주택판매, 미국 모기지 재융자지수 등 발표 예정

자료 출처: 연합인포맥스, Refinitiv, 유진투자증권

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, 특정주식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.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.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 의사 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져야 하고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.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/전송/인용/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



FX & Commodity

(단위: %, \$)

	9/24일	1D	1W	YTD
원/달러	1,334.90	-0.1%	-0.3%	3.6%
달러지수	100.35	-0.6%	-0.6%	-0.9%
달러/유로	1.118	0.6%	0.6%	1.2%
환율 위안/달러(역외)	7.01	-0.7%	-1.4%	-1.6%
엔/달러	143.23	-0.3%	0.6%	1.7%
달러/파운드	1.341	0.5%	1.9%	5.4%
헤알/달러	5.46	-1.1%	-0.5%	12.4%
WTI 근월물(\$)	71.56	1.7%	0.5%	-0.1%
금 현물(\$)	2,657.35	1.1%	3.4%	28.8%
구리 3개월물(\$)	9,821.00	2.9%	4.8%	14.7%

원달러 환율 및 국제유가 동향



원달러 환율 및 위안달러 환율 동향



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 환율은 -1.00원 하락한 1,334.90원에 마감. 야간거래에서는 1,330.40원 마감.
- 달러-원은 중국 경기부양 기대로 소폭 하락. 인민은행, 조만간 지급준비율 50 bp 인하하여 시장에 장기유동성 1조위안을 공급할 것이라 언급
- BOJ 총재, 근원인플레이 상승시 금리 인상이 적절하나 물가 상승 리스크는 적어 시간이 충분히 확보됐음을 언급. 이에 엔화가 약세를 보이며 달러-원 강세폭도 제한

원달러 환율 및 달러지수 동향

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 인덱스는 위안화 강세 영향에 하락.
- 중국, 대규모 경제 부양 예고하며 위안화 급등하며 달러에 하방압력을 가함. 인민은행, 지급준비율 외에도 LPR, MLF, 모기지 금리까지 모두 인하할 의사를 밝힘
- 이러한 가운데 미 소비자신뢰지수, 3개월만에 최저치로 예상치 대폭 하회하여 추가 빅컷 단행 기대감을 자극, 달러 낙폭을 확대시킴